

<http://dx.doi.org/10.20880/kler.2016.51.1.285>

현대시 감상 활동 구성에서 팟캐스트의 효용 고찰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분석을 중심으로

진가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 이 논문은 제5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4.12.06.)에서 포스터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소통 매체로서의 팟캐스트
- III. 팟캐스트의 문학 소통적 맥락: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분석
- IV. 현대시 감상 활동 구성에서 팟캐스트의 효용
- V. 결론

I. 서론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비롯한 스마트 교육 환경이 도래하면서, 이러한 환경이 갖는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교과별 교수·학습 상황에 맞는 도구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¹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팟캐스트를 통한 문학 읽기는 기존의 작가-작품-독자의 단선적인 소통에 매개자를 위치시킴으로써, 소통의 국면을 다층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² 특히 '독자'이면서 동시에 '매개자'의 자리에 위치하는 팟캐스터를 통한 일련의 소통현상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주체 간 '대화'에 주목하는 문학, 특히 현대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팟캐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학 소통의 양상이나, 문학소통에서의 팟캐스터의 매개적 역할 등의 측면에서 교육적 활용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1 '서유경, 「스마트교육 시대의 국어교육 연구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49(2), 국어교육학회, 2014, p. 71. 한편 노르베르트 볼츠(N. Bolz)나 괴츠 그로스클라우스(G. Großklaus)와 같은 매체철학 학자들은 매체가 단지 발전된 기술로서만이 아니라, 사유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사유 도구'로서 현대의 시공간을 재편·창출해 낸다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린비, 2012)고 논의하기도 한다.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2013년 국어교육학회의 학술대회에서도 '스마트 교육 시대'라는 주제에서 이러한 상황인식의 일단이 발견된다.

2 김정우, 「스마트 교육 시대의 문학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9(1), 국어교육학회, 2014, p. 92.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팟캐스트의 매체적 특성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구한다.

연구문제 2: 소통 양상, 전달 내용, 전달 방식의 세 차원에서 팟캐스트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의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시 감상 활동에서 팟캐스트 활용
의 의의를 도출한다.

설정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할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과 3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는 대상 팟캐스트인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의 에피소드 가운데 현대시와 시인에 관해 다룬 특정 에피소드들(ep.4 심보선, 『슬픔이 없는 십오초』와 ep.17 김기택, 『소』)을 중심으로 방송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한다.³

문학 읽기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 여러 팟캐스트⁴ 가운데 본 연구에서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팟캐스트를 통한 소통에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진행자의 수나 초대 손님의 유무, 주관(主管) 등이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대상으로 삼은 팟캐스트의 경우 진행자 1인만이 등장하기 때문에, 청취자를

3 제작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를 대상으로 한 에피소드 외의 다른 에피소드도 일부 대상에 포함시켰다.

4 애플 itunes Podcast 문학 분야에서 ① 팟캐스터의 작품 감상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할 것, ② ‘낭송’ 활동을 포함할 것, ③ 내적 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적은 수의 진행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 이상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 프로그램 명 | 진행자 | 시작일 | 대화 참여 인원 | 주관 |
|--------------|----------------|------------|----------|---------|
|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 김영하(소설가) | 2010.01.29 | 1인 | 진행자 본인 |
| 이동진의 빨간 책방 | 이동진 (전직 기자) | 2010.05.01 | 고정 2인+a | 위즈덤 하우스 |
| 문학이야기 | 신형철 (문학평론가) | 2013.07.31 | 고정 1인+a | 문학동네 |

대상으로 하면서도 개인적 독백의 형태를 띠는 발화 양상만을 초점화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팟캐스트를 기획·제작·유통하는 주체가 진행자 본인이기에, 출판사가 주관하는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 개인적인 매체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⁵

II. 소통 매체로서의 팟캐스트

1. 팟캐스트의 개념과 매체적 특성

1990년 이후 발달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인터넷 공간 내 각종 콘텐츠의 상호 연결성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웹 서비스 환경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 제작에 참여하는 웹 2.0 시대가 시작되었다.⁶ 이처럼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거나 메일을 주고받던 기존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활용과는 구분되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미디어 활용 양상에 대하여 ‘뉴 뉴미디어(New New Media)’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⁷

그중에서도 맞춤형으로 오디오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팟캐스트(podcast)는 애플(Apple)사의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을 결합한 단어로,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스포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을 배포하는 방식(podcasting)과 콘텐츠를 모두 일컫는다. 팟캐스트의 저자이자 제작자인 팟캐스터(podcaster)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발표하며, 이용자들이 개인 휴대폰과 모바일 기기 및 개인용 컴퓨터에서 오디오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공한다.⁸

5 시 낭송만을 전격적으로 다루는 여타 팟캐스트를 다루지 않은 까닭은 본고가 감상 교육 전반의 측면에서 팟캐스트의 효용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낭송뿐만 아니라 감상 내용 과정 전반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기 위함이다.

6 그웬 솔로몬·린네 쉬럼, 업무용 외 역, 『웹 2.0과 교육』, 아카데미프레스, 2009.

7 폴 레빈슨, 설진아권오휴 역, 『뉴 뉴 미디어』,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1.

팟캐스트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09년 11월이지만,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딴지일보*에서 제공한 시사풍자 방송인 <나는 꼼수다>에서부터이다.⁹ 팟캐스트는 시민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면서, 주로 정치와 관련하여 대중매체가 방관하거나 일상에 묻힌 이슈들을 표면화하는 ‘대항 공론장’의 맥락에서 다루어졌고 지금까지도 정치와 관련된 콘텐츠 이용이 많은 편이다.¹⁰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수한 공동체 내의 소통이라는 점, 초기 등장 시에 정치적 의미로 읽혀졌다는 점에서 팟캐스트는 라디오와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제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청취자에게 프로그램과 그 향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적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 이용층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역으로 콘텐츠 제작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저작권 문제로 음악을 배제한 구술 형태의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¹¹

라디오의 경우 팟캐스트의 등장 및 대중화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비교적 소외되었던 콘텐츠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통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매체 간 변별 지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매체의 기술적 특성 간의 차이는 콘텐츠의 양과 질의 측면, 제작 및 향유 주체의 권리 및 책임의 문제 등 내용적·소통 맥락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낳았다.

8 그웬 솔로몬·린네 쉬럼, 앞의 책, 2009, p. 67.

9 황희진, 「나만의 콘텐츠, 거침없이 ‘발설’…1인 미디어 ‘팟캐스트’」, 『매일신문』(2012. 6.2).

10 팟캐스트가 갖는 대항 공론장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주로 원숙경·윤영태, 「대항공론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나는 꼼수다>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 29권 3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2의 논의를 참조. 한편 2011~2013년 팟캐스트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향에 대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정치·뉴스 관련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사회 및 문화 분야, 음악, 코미디, 교육, TV 및 영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10일 현재 팟캐스트 포털(팟빵)에 따르면 이용 순위 1위~10위 내에 단 두 편(취미, 코미디 분야)만이 ‘뉴스 및 정치’ 외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앰브레인, 2011~2013 Tracking survey; 팟빵(<http://www.podbbang.com>) 참조.

11 이중식, 「라디오의 미래: 인터넷 라디오」, 김대호 외, 『미디어의 미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p. 163~164.

일례로 SBS 파워 FM(107.7MHz)의 ‘이동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한 번씩 영화전문기자가 출연하여 그 주의 개봉작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정규방송시간에 맞추어 마무리를 한 후 준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녹음하여 본방송과 함께 팟캐스트 또는 다시듣기를 위한 파일로 제공한다.¹² 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진행자, 출연자를 비롯한 제작진이 시간과 콘텐츠 구성에 제약이 있는 정규방송의 한계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청취자의 특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팟캐스트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소통의 공간과 방식, 소통 참여자의 역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방증해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감각성의 다중적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도구들이 대부분인 웹 2.0 도구 가운데서도 팟캐스트는 오로지 청각적 감각, 즉 매체가 지닌 구술성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다. 월터 옹(Walter Ong)의 구술성 개념의 고찰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옹은 발화되는 순간 존재하고 사라지는 ‘소리’로 매개되는 커뮤니케이션 구어에 주목하는데, 특히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할 수단이 없이 실재적인 소리를 매개로 한 물리적 현존 상태를 전제로 하는 소통을 제1의 구술성으로 본다.¹³ 이후 인쇄 문화의 등장은 말의 표현과 전달 과정이 시각적 지각과 연관되면서 소통 상황에서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의 감각체계를 재구성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의 등장은 이러한 재구성 작용을 가속화하는데, 그것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각적 공간에 갇혀 있던 말의 청각적 감각이 회복되고 유기체 집단을 통합하는 소리의 즉시성, 즉흥성, 상황성, 현

12 종영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팟캐스트 다운로드 페이지와 라디오 다시 듣기 폐이지를 통해 정규방송 분량 외에 추가적으로 녹음한 파일을 제공한 바 있다.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podcast_radio_list_down.jsp?vVodId=V2000002743&vProgId=1000959&vMenuId=1020420)

13 W. Ong, *Oral residue in Tudor prose style*, In F. Thomas & P. Soukup (Eds), *An Ong Reader: Challenges for further inquiry*. Cresskill, NJ: Hampton Press, 2002. (이동후, 「제3의 구술성 —‘뉴 뉴미디어’ 시대 말의 현존 및 이용 양식」, 『언론정보연구』 47(1),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0, pp. 49–50에서 재인용).

존성 등이 복원되는 방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제2의 구술성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술성은 글과 인쇄 문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다.¹⁴

이러한 제1의 구술성과 제2의 구술성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옹의 개념인 미디어의 잔존(residue)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잔존은 과거의 지배적인 미디어 문화가 새로운 미디어 텍스트의 배경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과거의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보완되며 새로운 미디어의 언어 표현이 과거의 미디어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¹⁵는 인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2의 구술성으로 명명되는 라디오와 같은 매체는 제1의 구술성과 다른 분석적이고 기술적이며 서사적인 활자 문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여기에는 문자성의 개인화된 내향성이나 합리적 사고가 남아 있게 된다.

특히 팟캐스트는 대중을 상대로 하나 경제적·제도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제작 시스템보다는 제작자가 중심이 되는 도구이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매개로 한 팟캐스트의 소통 환경은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제작자-이용자 간 대면성이 강조되고 개인화된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면서도, 의도적 계획에 의해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문자성이 개입하는, 구술성과 문자성이 잔존해 있는 반(半)대면성의 공간¹⁶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은 대면 소통에 비해 발화 내용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구술 상황에서 발화자의 부가적 진술이 추가된다는 점, 발화

14 이동후, 앞의 논문, 2010, pp. 45–52. 참고로 이 논의는 웹 2.0시대의 각종 미디어 형태를 ‘뉴 뉴미디어’로 칭한 레빈슨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제3의 구술성’이라는 용어로 명명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팟캐스트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과 소통 양상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15 위의 논문, pp. 49–51.

16 김정우(2014)에서는 구술 시대의 창작·전파·수용의 과정을 시공간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면성’으로, 그에 반해 문자 시대의 경우 실제 작가–실제 독자 간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이 둘이 서로에게 ‘기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대면성’으로 볼 수 있다면, 팟캐스트를 통한 소통은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를 중간에서 이어 주는 ‘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반대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하였다. 김정우, 앞의 논문, 2014, pp. 83–86.

상황과 향유 상황 간에 시차가 있긴 하지만 소리가 복원됨으로 인해 소통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리의 즉시성, 즉 흥성, 현준성의 제1의 구술성이 복원된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제작자이자 진행자인 팟캐스터의 역할은 팟캐스트를 통한 소통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방향타 역할을 한다. 팟캐스트를 통한 소통 참여자들은 특정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독자의 위치를 점하는 수평적 관계에 놓여 있다.¹⁷ 팟캐스터와 청취자는 문학 경험 및 감상을 명징화된 언어로 표현하는 경험의 능숙도 측면에서의 질적인 차이만 존재한다.¹⁸ 특히 소통 주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례를 통해 팟캐스트 진행자의 내용 구성 방식이나 대화 방식을 고찰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관해서는 III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한다.

2. 팟캐스트를 통한 교육적 소통

교육과 관련하여 팟캐스트는 기술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 왔다. 영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과 같이, 언어의 유창성을 기준으로 음성자료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어교육에서 주로 논의¹⁹되었고, 마찬가지로 음악교육에서의 음성자료 활용에 대해 고

17 공통적으로 구술성을 바탕에 둔 소통 관계이나, 직접 대면한 18~19세기 전기수와 평민의 관계는 수직적 권력 관계이며 그 당시 독자에게 전기수는 작가와 진배없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유추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우, 앞의 논문, 2014, p. 85.

18 본 연구에서 분석 사례로 선택한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은 팟캐스터가 실제 소설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작가'인 팟캐스터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의견을 묻기도 하고, 작가로서의 활동에 대한 글에서는 답글을 달기도 한다. 그러나 주로 업데이트를 재촉하거나 감상평들이 대부분인, 탑재한 팟캐스트와 관련한 청취자와의 소통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 김영하의 팟캐스트 청취자 중 한 명은 스스로 유사한 팟캐스트를 만들어 청취자들의 감상평에 일일이 답글을 달고, 프로그램과 관련한 청취자 의견을 수용하거나 그에 대해 답변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팟빵 '평범한 회사원의 귀로 읽는 책' 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211>) 참조.

19 다음의 연구물들은 이러한 경향에 속한다. 조세경, 「영어학습을 위한 Podcasting의

찰한 논의²⁰도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팟캐스트가 모바일 장치에서의 이동성이 확보된다는 점, 실제성 높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청취학습에서의 활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음악교육에서의 논의와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학습 자료로 음성 파일을 제공하거나 악기 습득과 관련하여 수업 내용을 기록하거나 과제를 제작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처럼 팟캐스트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대개 매체적 특성을 부각하는 차원이나 녹음 기능 등 학습 도구로서의 지엽적인 기술적 특성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팟캐스트는 결과로서 제공되는 고정된 산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작‘되고’ 있는 매체이며 또한 누구나 제작 ‘가능한’ 매체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 팟캐스트가 지닌 매체적 특성을 비롯하여 실제 팟캐스트 사례를 대상으로 내용 및 전달 방식 등 내적 특질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팟캐스트가 지닌, ‘제작 가능한 매체’로서의 기술적 특징은 디지털 교과서에 접목시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크게 ‘자료’와 ‘도구’ 차원에서 이에 접근²¹하고 있는데,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제재로서의 자료적 성격과 학습 상황에서 수용, 생산, 편집,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적 성격으로 구분

활용’,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9(3),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06; 오리라, ‘팟캐스팅을 활용한 자율적인 청취 학습: 학습자 사례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27(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09; 김유미·박동규, ‘팟캐스팅의 한국어 교육 적용 사례 연구 —경영학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교문화연구』 3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20 최미영, ‘팟캐스팅의 음악교육적 활용 가능성 모색’, 『한국초등교육』 23(1),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2.

21 정현선, ‘스마트 교육 환경의 협력적 매체 제작 및 글쓰기 수업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5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4, p. 306.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인 정혜승·육현진(2012)의 연구에서 분류한 틀, 즉 지식 생산과 소통의 도구(도구 차원), 학습 및 평가를 위해 개발되거나 연계된 다양한 자료(정보 자원), 실세계의 네트워크와의 소통(소통 차원), 학습 지원 및 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관리(관리 자원)의 네 가지 차원의 접근을 두 가지로 구획한 정현선(2013)의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정혜승·육현진, ‘국어과 디지털 교과서 모형 개발’, 『교육과정연구』 30(2), 한국교육과정학회, 2012.

된다. 특히 문학 분야 팟캐스트는 ‘녹음하여 듣기’ 활동의 실현태로서, 팟캐스트라는 방식을 매개로 한 문학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한 텍스트 자료에 해당한다. 즉 구술의 형태로 시에 대한 감상을 술회하는 도구로서, 또는 시를 낭독함으로써 자신의 감상 결과를 표현하고 추후 수업 자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돋는 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팟캐스트 연구에서처럼 개별적 학습 수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감상 활동과 같은 수업 내용에 접목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로서의 관점은 현행 디지털 교과서에서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활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문제점²²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다만 이때 도구 차원의 접근이 활동의 ‘기록을 위한 도구’ 차원에서만 활용되지 않도록 교수·학습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즉 기술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팟캐스트의 장점을 내용적 차원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구안이 요청된다.

III. 팟캐스트의 문학 소통적 맥락 :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분석

1. 반(半)대면적 대화

팟캐스트에서의 대화 양상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소통 상황을 전제한다. 분석 대상인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이 제작되는 장면을 재구해 보면, 진행자는 대화 상대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이어 가는 독백 형태의 발화를 수행하면서도, 콘텐츠를 선택할 미지의 청취자를 상정해 두고 발화 내용을 구성하며 발화를 수행한다.

22 정현선, 앞의 논문, 2013, p. 523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ep.04 심보선, 『슬픔이 없는 십오 초』
(2010.02.10)²³: 혼자 사실은 저희 집에 앉아서, 제 책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떠드는 거죠. 혼자서 책이나 컴퓨터 화면, 벽을 보고 떠드는 셈인데. 어, 그런데 이게 녹음이 되서 또 누군가의 아이팟이나 또는 뭐 MP3 플레이어나 또는 뭐 누군가의 컴퓨터에서 시차를 두고 송출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시간, 저는 저대로 제 시간에 이것을 녹음을 하면, 예전에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은 일제히 송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개인화된 시간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청취자에게서 향유되는 측면까지를 포함해서 보면, 독백 형태의 발화는 실체로서의 수신자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대화(對話)로서의 위상을 획득한다. 즉 청취자는 제작자가 수신자를 상정하고 말해 놓은 텍스트를 들음으로써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팟캐스트를 통한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특성은 수신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반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대면적 소통의 속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면 상황이 재현된다는 점에서 ‘들려주기’²⁴를 지향하는 반(半)대면적 대화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러한 대화적 특성은 제작자가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게 된 효과로, 시 양식의 특성을 일종의 극적 독백, 즉 ‘엿듣는 발화’로 규정하였던 일단의 논의들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특히 시는 통상 서정적 주관성이 발현되는 것이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척하고, 이를 엿듣는 발화’²⁵이기도 하다. 두 경우 모두 말하고 듣는다는 구비적 관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독자들은 시를 대하여 특정한 ‘목소리’를 추론하게 된다.²⁶ 즉 시를 매개로

23 이하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의 에피소드 내용을 전사한 것으로, 괄호 안은 팟캐스트가 등록된 날짜이며, 밑줄은 인용자가 표시한 것임을 밝혀 둔다.

24 ‘들려주기’라는 언급은 영상언어가 ‘말하기’적 성격을 지닌 문자 언어의 다이제시스(digesis)적 면모와 이미지에 의한 대상 재현(‘보여주기’)의 성격을 지닌 미메시스(mimesis)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상매체 언어의 특징을 ‘보여주며 말하기’로 규정한 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윤우, 「시 교육에서 영상매체 언어 활용의 방법과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28, 한중인문학회, 2009, pp. 491–492 참조.

25 노스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p. 348.

26 허버트 F. 터커, 「극적 독백과 서정시 엿듣기」, 차비바 호제크·페트리시어 파커 편, 윤

하여 시차를 둔 채 발화와 엿듣기가 이루어지는 대화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속성은 상론한 팟캐스트의 소통 방식과 부합한다.

한편으로, 팟캐스트는 제작자·청취자 모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형성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형성된 경험에는 음성을 통한 구술적 소통의 특성과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문자적 소통의 특성이 잔존해 있다. 이로 인해 구술성이 갖는 일대일의 내밀하고 친근한 소통 상황이 전제되면서도, 대화 내용이 저장된다는 점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문자성의 특성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작 과정에서 ‘책의 좋았던 부분이라든가 책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경험을 통해 책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털어놓는 시간이 된다.²⁷ 해당 팟캐스트의 기획자·제작자·진행자가 모두 김영하 본인이므로 발화 내용을 구성하거나 전달하는 방식 등에서 제약 조건이 작용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미지의’ 청취자를 상정²⁸하고는 있으나 결국 자신의 감상을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경험의 성격을 띠게 된다.

청취자 입장에서는 팟캐스트를 듣기에 적절한 시점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대개 개인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통해 접하게 되므로 제작자와 향유자 단 둘 간의 소통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경험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팟캐스트를 통한 소

호병 역, 『서정시의 이론과 비평: 신비평을 넘어서』, 현대미학사, 2003, pp. 393–410.

27 작은따옴표('')를 통해 인용한 부분은 아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ep.01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2010.01.29): 이 책 읽는 시간은 말 그대로 제가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 제가 최근에 읽고 좋았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책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중략)… 원하는 사람만 찾아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중략)… 미지의 청취자, 미지의 독자들을 향해서 무슨 병에다 편지를 담아서 보내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이 팟캐스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 속에 편지를 넣어서 띄워 보낼 생각이고요. 무슨 의견이 있으시다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구글에서 김영하를 치시면 저의 홈페이지가 됩니다. 거기 오셔서 의견 남겨 주십시오.

28 옹은 구술성에 각별히 주목하면서, 그것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를 ‘나–너’의 현존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며, 나–너의 완전한 현존이 의식적이고 성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한다는 점으로 보았다. 이동후, 앞의 논문, 2010, p. 72.

통은 대표적으로 시를 비롯한 문학적 소통이 갖는, 대면적 소통과 비대면적 소통의 중간적 성격을 떤다고 할 수 있다.

2. 연쇄와 부연을 통한 맥락화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은 책을 읽은 진행자²⁹의 생각이나 느낌을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는 문학 분야 팟캐스트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책(대개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그 바탕에 둔다. 다만 팟캐스트를 제작하기 위해 책을 선정하고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훌로 수행하는 김영하의 경우, ‘낭독을 기본으로 잡설이 더해지는 단순한 형식’을 표방³⁰한다.

팟캐스트의 내용은 곧 ‘말해 놓은 텍스트’라는 점에서 텍스트성을 갖는다. 각 에피소드는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시작과 끝을 설정하며, 전체적으로 특정 책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통일된 특정 종류의 사고 조직을 담고 있다.³¹ 이는 문자로 된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성에 해당하는데, 상대적으로 분석적, 논리적, 추상적이라는 특성을 띤다. 해당 텍스트는 구술의 양식을 택함으로써, 언급된 텍스트성을 떠면서도 일반적인 문자 텍스트와는 다른 결을 보여 준다.

ep.17 김기택, 『소』(2010.05.31): 얼마 전에 그 ①이창동 감독의 “시”가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됐었죠? …(중략)… 저도 역시 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시, ②우리나라는 좀 드물게 시를 사랑하는 나라죠. 나라였죠.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시에 대한 관심, 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ep.04: 제가 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이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집 서문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 뒤에, 장 끌레르라는 피카소 미술관장은 이 ③카이로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결정

29 이 절에서는 팟캐스터의 진행 측면을 초점화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진행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30 인용한 부분은 김영하의 개인 홈페이지 ‘김영하 아카이브’(http://kimyoungha.com/tc/?page_id=35)에서 참조하였다.

31 월터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6, p. 212.

적 순간, …(중략)… 사진가 포착의 시간, 사진가의 임무는 바로 이런 카이로스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④세계의 빈틈, 또는 인간의 빈틈, 시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발견해 내는 것, 경험적으로. 즉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구도를 포착해서 카메라에 찰나의 순간을 담는 것. ⑤ 제가 오늘 심보선이라는 시인의 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현대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인들이 놓치고 있는 카이로스적인 빈 시간, 빈 장소. ⑥아킬레스의, 말하자면 아킬레스건. 하녀가 목욕을 시키다가 손가락으로 집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달을 수 없었던, 그래서 아킬레스라는 영웅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것이 시인의 몫이 아닐까.

에피소드 17은 시와 소설의 장르성에 대한 진행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인용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와 김기택 시인의 시집 『소』에 수록된 일련의 시편들에 대한 진행자의 감상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진행자는 ‘좋은 시란 오래 보고 적게 쓰는 것’이라는 명제를 제시하는데, 그에 따라 「직선과 원」, 「타조」, 「명태」, 「소가죽 구두」 등의 시가 소개된다. 이 시들은 해당 대상을 시인이 오래 관찰하여 형상화한 산물이라는 텍스트의 사고 조직을 뒷받침한다.

즉 에피소드 전체 내용에는 ‘영화 <시>의 시작(詩作) 장면’ – ‘시와 소설에 관한 관념’ – ‘사물을 끈질기게 바라보고 조용히 시를 쓰는 시인 김기택’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연쇄가 반영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에피소드 4의 ③과 ④에서 보듯 ‘결정적 순간/지점’의 뜻을 지닌 ‘카이로스’와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심보선 시인의 시집 『슬픔이 없는 삽오 초』에 대한 감상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드러나며, 이를 매개로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집과 심보선의 시집은 상호텍스트(intertextuality)적 맥락을 형성한다.

한편으로는 글로 써진 대본을 읽는 것과 달리 구술 방식을 택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도 발견된다. 단락 이상의 단위로 내용이 정리되어 논리적 구조를 띠는 책이나 논문 등의 문자 언어와는 달리, 구술 상황에서는 문장 이하 단위로 내용이 분절되므로 의미 단위별로 발생

되는 결절과 덧붙이는 언급을 통해 앞선 문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설명하게 만드는 이야기 방식이 나타나게 된다.

②의 경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정련하면 ‘10년 전 우리나라는 시를 사랑하는 드문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이나, 첫 문장인 ‘우리나라는 좀 드물게 시를 사랑하는 나라죠.’라는 서술에 부연되는 후속 문장을 통해 이러한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은 구술 양식을 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⑥도 마찬가지로 ‘카이로스’라는 상호 맥락을 구체화하고 설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부연한 예이다. 또한 의미 단위별 발생하는 결절 지점으로 인해 ⑤와 같이 간극을 상쇄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주기 위한 담화 표지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발화 내용이 저장되면서도 현장성이 부가되는 반(半)대면적 상황으로 인해, 팟캐스트에서는 시(문학)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 생산에서 특히 연쇄·부연의 구술적 방식이 발화 내용을 맥락화하는 데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3. 연행을 통한 소통 상황의 간접적 체험

전달 방식상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책을 낭독하는 진행자의 독특한 방식이 주목된다. 에피소드 1에서도 밝힌 바 있듯 진행자가 선택한 이러한 방식은 팟캐스트의 제목과도 같이 그야말로 자신이 책을 읽는 시간이라는 의미와 관련된다.

ep.03 성석제,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2010.02.03): 현대 쓰여지는 소설들은 대부분 눈으로 읽도록 되어 있죠. … 이것은 뭐 한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생겨난 풍속이죠. … ①그 전까지는 소리 내서 읽는 음독이 일반적이었고, 이제는 루독이라고 하죠? 조용히 읽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②성석제 씨의 소설은 소리 내어 읽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리듬감도 있고요.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들을 때 대단히 웃깁니다. 그런 웃음을 서로 나누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책은 흔치 않죠. 그러면서도 글맛이 있어서 읽기에 참 좋은 소설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책 전체를 읽어 주지는 못하지만, 진행자가 낭독의 방식을 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①에서 보듯 진행자는 지금은 ‘묵독’이 일반화된 시대이지만, 이전에는 ‘음독’이 오히려 일반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독서 방법에서 벗어나 낭독을 통해 좋은 책을 ‘천천히’ 읽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려 한다는 제작 의도³²는 ‘낭독’을 선택한 진행자의 속내를 알 수 있게 한다.

②에서 보듯 진행자가 언어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낭독이라는 방식을 택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진행자는 리듬감을 보다 선명히 하고, 타인에게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는 낭독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낭독에 관한 진행자의 의도는 시를 낭송하고 그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경우에도 확인된다.

ep.17: [시 「직선과 원」³³을 읽고 난 뒤—인용자] 여기에 지금 사용한 시인의 시어도 마치 말뚝에 매인 것처럼, ‘옆집에 개가 생김, 말뚝’ 답답하게 조여 놓았죠.

인용한 부분에서 보듯 진행자는 시어와 그 배치가 주는 어감을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미묘한 언어적 감각의 차이를 자각하는 진행자는 해당 부분을 낭독할 때의 느낌을 ‘답답하게 조여 놓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해석과 평가는 진행자의 실제 연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32 이러한 인식은 진행자가 다른 팟캐스트에 출연, 대답한 내용에서도 발견된다. 아래 인용은 신형철의 문학이야기 제1회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김영하가 발언한 내용이다.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낭독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책을. 그런데 이것도 독서의 한 방법이잖아요? …(중략)… 그런데 저도 그래서 묵독을 오래 해 오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관습화된 독서 같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읽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했던 책들, 그런 책들을 한 번 천천히 읽어 보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면 천천히 읽게 되잖아요. 물론 혼자 읽고, 누구 앞에서 읽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팟캐스트와 결합해서 제가 읽고 사람들도 공유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33 시의 첫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기택, 「직선과 원」, 『소』, 문학과지성사, 2005, p. 20.

옆집에 개가 생김. / 말뚝에 매여 있음. / 개와 말뚝 사이 언제나 팽팽함. / 한껏 당겨진 활처럼 휘어진 등뼈와 / 굵고 뭉툭한 뿌리 하나로만 버티는 말뚝, / 그 사이의 거리 완강하고 고요함. / 개 울음에 등뼈와 말뚝이 밤새도록 울림. / 밤마다 그 울음에 내 잠과 악몽이 관통당함. / 날이 밝아도 개와 말뚝 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음. (중략)

낭독에도 반영된다는 점에서 진행자의 낭독은 곧 자신의 감상 결과의 표현으로 여겨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언어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인해 진행자는 ‘작가의 느낌’을 주는 근사한 낭독자로 평가받기도 한다.³⁴ 본인의 책이 아니더라도 언어의 리듬감이나 시어의 어감에 민감한 진행자의 낭독은 청취자로 하여금 작가와 대면하고 있는 기분을 주기도 하고 작가가 자신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 하는 것이다.

구술의 형태는 그것이 재생됨으로써 일차적으로 진행자와 청취자를 접속시켜 줌으로써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 있다는 느낌을 청취자에게 전사한다. 즉 실제로 눈앞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재현해 주는 것이 바로 구술이 가진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의 양식을 선택하여 실제 작품을 낭독하는 연행 방식은 해당 팟캐스트의 청취를 통해 청취자가 유사-작가와의 소통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IV. 현대시 감상 활동 구성에서 팟캐스트의 효용

1. 수용의 비계: 감상 내용의 메타적 조정

텍스트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있듯, 팟캐스트의 진행자는 이야기거리를 미리 준비하기는 하지만 정련된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부재한 구술 상황을 전제로 발화를 이어 나간다. 이러한 점은 말하기 과정에서 진행자가 발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발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⁵

시와 같이 빈자리가 많은 텍스트에 대한 감상을 글로 나타낼 때, 곧

34 김정우, 앞의 논문, 2014, p.86.

35 이러한 사례는 3장 2절의 ep04.인용문에서 보듯 반복적으로 ‘카이로스적 관점’에 대해 부연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자신의 감상을 고정된 문자로 포착하여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준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감상문의 장르적 관습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 하거나,³⁶ 전문 비평가의 비평문을 감상 활동의 비계로서 활용³⁷하려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문자화의 본질적인 제약인, 문자로 정제되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감상의 잔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 지닌다.

이에 비해 팟캐스트는 상대적으로 문자화의 제약이 적은 구술 상황이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전 내용에 대한 연쇄와 부연을 통해 감상을 이어갈 수 있다. 구술의 내용으로부터 전체 내용을 통하여하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상의 각 내용 간을 연결하는 고리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팟캐스트가 감상 내용을 메타적으로 조정³⁸하는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계임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감상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 및 교사가 감상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감상 내용이 녹음된 팟캐스트는 그 자체로 학습자의 해석 과정과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교육적 제재로 기능하며 조정과 같은 추상적 활동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³⁹

이처럼 팟캐스트는 내용적 측면에서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과 같이 전문 독자의 감상 내용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 등 다른 감상자의 감상 내용 구성의 과정을 문자화된 비평문에 비해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감상 내용을 메타적으로 조정하는 수용의 과정에서 비계

36 강민규, 「현대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과 교육적 활용 방향 —작품 재기술(再記述) 유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37 강민규, 「비평을 비계로 활용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8 시 교육에서 독자 ‘조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강민규,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참조.

39 물론 팟캐스트를 통한 조정 활동 및 감상 내용의 소통이 비단 현대시 감상 활동에서 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고에서는 III장 1절에서 언급하였듯 시 양식이 갖는 ‘엿듣는 말화’로서의 속성이 팟캐스트의 반(半)대면적 대화와 상통하는 바가 크다는 점, 후술할 ‘낭송’의 연행적 측면에서 현대시 감상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점 및 효용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을 밝혀 둔다.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특히 독자의 감상 텍스트 생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내적 대화의 구술적 표현 양식으로서의 감상 텍스트와 감상 내용의 ‘표현’이 강조된 연행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내적 대화의 구술적 표현 양식: 감상 텍스트(text)

팟캐스트에서 대화 방식은 문학 작품, 사진,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술회하면서도, 미지의 타자를 대상으로 삼는 웹에 게시한다는 점에서 감상의 자유로움과 인과의 책임이 동시에 따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듣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독백 상황도 아닌 반(半)대면적 대화를 전제한다.

현대시 교수·학습에서 ‘대화’는 일찍이 다른 관점 혹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시적 자유와 문체로서의 언어를 발견하고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는 과정으로서 주목된 바 있다.⁴⁰ 이 가운데 내적 대화는 텍스트를 읽는 동안에 지배적 읽기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자 내부의 다양한 내적 자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⁴¹를 일컫는 것으로, 본고에서 주목한 팟캐스트의 대화 형식과 조응되는 바가 있다.

팟캐스트의 발화는 시 텍스트를 바라보는 한 명의 독자로서의 진행자의 관점이 잘 드러나면서도 청취자라는 상대를 염두에 두고 진술한다는 점에서 내적 대화에 상응한다. 시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고심하는 작업은 시적 자유의 근거를 모색하고 시 텍스트가 활성화

40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지속해 온 바 있는 최미숙은 현대시 해석 수업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대화’를 주요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고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대화는 독자 내면에서의 내적 대화와 현실적 독자 사이의 횡적 대화,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 사이의 종적 대화의 층위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 최미숙, 「문학교육에서의 수사학적 읽기 연구—‘내적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62, 한국어교육학회(구-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98.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2006.

41 최미숙, 앞의 논문, 2006, p. 236.

시킨 또 다른 내적 자아와의 대화를 이어 가는 과정과 닮아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의 경우 1인 진행자이므로 발화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질문-대답의 양식이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팟캐스트는 이러한 내적 대화의 과정 및 결과를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던 ‘독서 스토리’ 활동⁴²을 비롯한 감상‘문’에 내재할 수밖에 없는 ‘문자화’의 제약을 극복하는 구술적 표현 양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팟캐스트는 상대적으로 글쓰기를 통해 정제되는 과정의 손실을 최소화한 반응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용뿐만 아니라 ‘도구’라는 관점에서 팟캐스트는 감상 내용의 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일회적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일부가 상실되기 쉬운 감상 내용을 축적하고, 이를 교육의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효용이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감상 후 말하기’ 활동에 대한 접근에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한다. 먼저 이는 감상‘문(文)’의 영역을 음성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감상 텍스트(text)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기 활동은 쓰기에 비해 ‘정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쓰기에 이르는 기본 단계로서의 의미만 부여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쓰기-말하기의 관계가 이와 같지는 않으며,⁴³ ‘감상 후 말하기’ 활동 자체가 감상 활동의 한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시의 경우 ‘낭송’이 그 자체로 감상의 표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감상의 표현으로서 연행적 체험의 공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행자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낭독하는 것이다. 특히

42 최미숙, 앞의 논문, 2006, p. 241.

43 영화의 예를 들어 보면, 완성된 대본과 이를 바탕으로 연기를 하는, 말하기 행위의 가치가 전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시집을 선택했을 경우 몇 편의 시에 대한 낭독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책 속에 인쇄된 문자 형태로 시를 접하는 것이 익숙한 기준 문학 소통 상황과는 색다른 느낌을 준다. 낭독된 시는 문자화된 시의 복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시에 대한 감상의 표현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영화를 다시 예로 들어 보면, 배우는 시나리오를 통해 작품 전체의 의미와 자신이 맡은 인물을 이해하고, 이해한 바에 따라 연기로 표현해낸다. 배우에 따라 특정 장면에서 목소리의 높낮이 및 호흡이나 성량을 조절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차이들이 배우가 나름대로 인물을 만들어 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배우가 어떻게 작품과 인물을 읽어 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과도 유사한 바가 있다. 동일한 노래가 다른 가수에 의해 불리고, 또한 그것이 새로운 노래로서 사랑받는 까닭은 앞선 노래와는 변별되는 새로운 해석의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연행’이 곧 텍스트에 대한 감상의 표현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시에 대한 낭독 행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⁴⁴ 그러나 그간 시의 낭독은 감상의 표현 행위보다는 음악성의 구술적 재현으로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으며,⁴⁵ 그로 인해 낭독이 가진 그 기능이 제대로 주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낭독 행위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낯선 것이라는 인식 또한 낭독 행위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 낭독에는 주체의 텍스트 해석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안정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연행으로서의 낭독의 효용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팟캐스트를 통한 반(半)대면적인 소통 상황은 연행자에게는 청중을 발화 시 존중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발화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청중에 압도되지 않는 일종의 안정적

44 텍스트의 내용 이해 및 수용에서 의미 맥락을 생성하는 과정으로서 낭독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최지현, 「독서교육에서 낭독의 의의에 대한 재음미」,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2010 참조.

45 노철, 「시 낭송교육에서 운율과 독자의 상호작용태와 의사소통방식으로서 연희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pp. 244-246.

소통 환경⁴⁶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팟캐스트의 대화 상황 및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활동이 구안될 때, 상론한 팟캐스트의 교육적 효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교육의 장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온 팟캐스트를 현대시 감상 활동의 맥락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팟캐스트는 반(半)대면성의 대화 공간을 창출하고, 디지털 도구로서 저장이 용이하고 상호 간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팟캐스트의 특징은 현대시 감상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효용을 갖는다.

먼저 수용의 측면에서는 감상 내용의 축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습자가 스스로의 감상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의 감상 내용을 메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구안할 수 있다. 또한 생산의 측면에서는 음성 텍스트로의 확장된 ‘감상 텍스트’를 생산하는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감상의 ‘표현’으로서 낭독을 통한 연행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팟캐스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논의의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팟캐스트의 교육적 효용이 디지털 교과서나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의 교육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현대시 교육 환경에 시사점을 주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6.02.10. 투고되었으며, 2016.02.14. 심사가 시작되어 2016.03.02. 심사가 종료되었음.

46 최근 ‘불통’과 소통의 부재 상황이 주는 대립과 단절감의 지속이 시낭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참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논의한 연구(최혜경, 「감성의 발화 보완성 및 시낭송의 소통적 효용」, 『인문과학연구』 4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의 본격적인 연행에 익숙해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팟캐스트의 소통 상황이 발화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발화 상황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https://itunes.apple.com/kr/podcast/id356061083>).
신형철의 문학이야기(<https://itunes.apple.com/kr/podcast/id681094018>).

장민규(2010), 「비평을 비계로 활용한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민규(2014), 「현대시 비평문의 구성 형식과 교육적 활용 방향 —작품 재기술(再記述) 유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6–72.

장민규(2016), 「독자 반응 조정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기택(2005), 『소』, 문학과지성사.

김대호 외(2008), 『미디어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유미·박동규(2013), 「팟캐스팅의 한국어 교육 적용 사례 연구 —경영학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교문화연구』 3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63–286.

김정우(2014), 「스마트 교육 시대의 문학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9(1), 국어 교육학회, 78–105.

노 철(2005), 「시 낭송교육에서 운율과 독자의 상호작용태와 의사소통방식으로서 연희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학회, 239–263.

박윤우(2009), 「시 교육에서 영상매체 언어 활용의 방법과 의미」, 『한중인문학 연구』 28, 한중인문학회, 481–499.

서유경(2014), 「스마트교육 시대의 국어교육 연구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49(2), 국어교육학회, 61–82.

심혜련(2012), 『20세기의 매체철학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린비, 2012.

오리라(2009), 「팟캐스팅을 활용한 자율적인 청취 학습: 학습자 사례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27(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33–155.

원숙경·윤영태(2012), 「대항공론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나는 꿈수다>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3),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49-81.

이동후(2010), 「제3의 구술성 —뉴 뉴미디어’ 시대 말의 현존 및 이용 양식」, 『언론정보연구』 47(1),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43-76.

정현선(2014), 「스마트 교육 환경의 협력적 매체 제작 및 글쓰기 수업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5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01-335.

정혜승·옥현진(2012), 「국어과 디지털 교과서 모형 개발」, 『교육과정연구』 30(2), 한국교육과정학회, 155-178.

조세경(2006), 「영어학습을 위한 Podcasting의 활용」,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9(3),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41-254.

최미숙(1998), 「문학교육에서의 수사학적 읽기 연구 —‘내적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62, 한국어교육학회(구-한국국어 교육연구학회), 21-40.

최미숙(2006),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227-252.

최미영(2012), 「팟캐스팅의 음악교육적 활용 가능성 모색」, 『한국초등교육』 23(1),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41-156.

최지현(2010), 「독서교육에서 낭독의 의의에 대한 재음미」,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141-178.

최혜경(2015), 「감성의 발화 보완성 및 시낭송의 소통적 효용」, 『인문과학연구』 4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3-338.

황희진(2012. 6. 2). 「나만의 콘텐츠, 거침없이 ‘발설’…1인 미디어 ‘팟캐스트’」, 『매일신문』.

Frye, N.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역(1982), 『비평의 해부』, 한길사.

Hosek, C., & Parker, P. (ed). *Lyric poetry*. 윤호병 역(2003), 『서정시의 이론과 비평: 신비평을 넘어서』, 현대미학사.

Levinson, P. *New new media*. 설진아·권오휴 역(2011), 『뉴 뉴 미디어』,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Ong, W. *Orality and literacy*. 이기우·임명진 역(1996),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Solomon, G., & Schrum, L. *Web 2. : new tools, new schools*. 엄우용 외 역(2009), 『웹 2.0과 교육』, 아카데미프레스.

김영하 아카이브(http://kimyoungha.com/tc/?page_id=35).
이동진의 그림에도 불구하고(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podcast_radio_list_down.jsp?vVodId=V2000002743&vProgId=1000959&vMenuItem=1020420).

팟빵(<http://www.podbbang.com>)

평범한 회사원의 귀로 읽는 책(<http://www.podbbang.com/ch/9211>).

학회자료, 미디어 이용 및 팟캐스트 관련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1(12),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학회자료, 미디어 이용 및 팟캐스트 관련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2(9),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학회자료, 미디어 이용 및 팟캐스트 관련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3(9),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초록

현대시 감상 활동 구성에서 팟캐스트의 효용 고찰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분석을 중심으로

진가연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팟캐스트는 실제적으로 적용될 만한 텍스트 자료이다. 본 연구는 팟캐스트를 통한 대화 양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적 활용 방안 구안을 위해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을 분석하였다.

팟캐스트를 통한 소통은 구술 시대와 문자 시대의 특성이 잔존해 있는 반(半)대면적 소통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기존 현대시 교육 논의에서의 ‘내적 대화’와 조응된다. 또한 감상 내용 구성 과정이 상세히 드러난다는 점, 진행자의 낭독은 감상 결과의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서 독자가 문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현대시 교육에서 팟캐스트는 감상 텍스트의 구술적 표현 도구로서, 감상의 표현을 위한 연행적 체험 활동과 감상의 메타적 조정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현대시 교육, 감상 활동, 팟캐스트, 구술성, 반(半)대면적 소통, 감상 텍스트, 내적 대화, 낭독, 도구적 관점, 연행적 체험

ABSTRACT

A Study on Utility of Podcast in Modern Poetry Education

—Focused on analysing 'Time to Read Books by Kim Young-ha'

Jin Kayeon

Podcast is useful educational text material for future smart education environments. This study deduces features of communication through Podcast by analysing 'Time to Read Books by Kim Young-ha' and drew up plans of educational application.

First, communication through podcast is characterized semi facial relationship that is residue between the period of the spoken word and written word. This point is related to discussion of inner-dialog in modern poetry education. Second, it exposed the process of the readers' appreciation in detail. Finally the recitation of Kim, as the expression of appreciation, leads the readers to experience the communication process through mediated literature.

From this discussion, podcast in modern poetry education is oral expression tool for appreciation text and enables the readers to have performing experience and meta-modification activities.

KEYWORDS modern poetry education, appreciation activities, podcast, orality, semi facial relationship, appreciation text, inner-dialogue, recitation, the perspective of 'tool', performing experience